

“국제개발협력학회” 창립

정리 : KOICA 정책연구실

I. 개요

- 일 시: 2007년 10월 19(금) 17:00 ~ 19:00
- 장 소: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3층 대회의실
- 참 석: 내외귀빈 및 학회 창립회원 등 약 120명

II. 진행

- 동 학회의 창립총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는 개회사, 국민의례, 경과보고, 창립발기문 낭독, 학회장 선출, 내외귀빈 축사로 진행되었고 2부에는 정관채택, 임원진구성, 사업계획보고와 함께 임현진교수(서울대학교) 신임 회장의 폐회사로 종료됨

III. 학회 창립 취지

- 20세기 후반 한국은 빈곤과 저개발의 악순환 구조를 탈출하여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둘 만큼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한국의 고도성장은 국제사회의 경이와 찬탄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었음

- 이러한 경제성장의 발판 위에서 21세기 초입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전환기를 맞이하였음. 21세기는 우리가 아직도 가난의 질곡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타 후진국을 위해 외부로 자금을 공여하고 각종 개발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시기임
-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한국국제

협력단(KOICA)을 창설하여 국제사회의 책임과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그동안 정부차원의 공적원조를 꾸준히 증가시켜 왔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개도국 개발협력을 위한 각종 인도적 지원도 급속히 확대되어 왔음. 최근에는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개도국 협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아직도 초창기에 머무르고 있음. 이제 겨우 20여년의 일천한 경험을 갖고 있고, 국민총소득 중 공적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개발원조 공여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 2007년은 한국의 공적원조가 시행된 지 20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이제 개발협력의 성년기로 진입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새천년

문명사의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는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21세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좌표를 정립하기 위한 진지한 학술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 인력과 정부, 공공기관의 정책담당자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개발협력 현장경험이 있는 실무진들을 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섭적인 학회로 창립하고자 함
- 개발협력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학문분야를 포함하는 학제적 학회, 개발현장의 땀 냄새가 묻어나는 경험중심적 학회, 빈곤과 폭력의 아픔을 적시하는 감성이 배어나는 인도주의적 학회, 국제사회에서 바람직한 개발협력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자적 학회, 개발협력 분야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후견자적 학회를 지향하고자 학회를 창립하였음